

현안과 과제

■ 추석의 서민 및 청년 경제고통지수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

목 차

■ 추석의 서민 및 청년 경제고통지수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

Executive Summary	i
1. 개 요	1
2. 경제고통지수 추정	2
3. 시사점	7

□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총 괄 : 주 원 이 사 대 우 (2072-6235, juwon@hri.co.kr)

□ 동 향 분 석 팀 : 오 준 범 선 임 연 구 원 (2072-6247, jboh19@hri.co.kr)

 신 유 란 연 구 원 (2072-6240, yooran0111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□ 추석의 서민 및 청년 경제고통지수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

■ 개 요

최근 국내 경기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실질임금 증가율이 감소하고 생활물가와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서민 생활 개선은 미흡하다. 국내총생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16년 4분기 2.4%에서 2017년 2분기 2.7%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, 실질임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6년 3분기 2.8%, 4분기 1.9%에서 2017년 1분기 0.4%, 2분기 1.6%로 부진한 모습이다. 또한 청년실업률이 악화되고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등 서민 생활 개선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서민과 청년에 대한 경제고통지수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.

■ 추석 직전의 경제고통지수 비교

경제고통지수와 서민·청년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3년간 추석 직전과 비교해볼 때 2017년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(경제고통지수 : 물가상승률 + 실업률) 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추석 직전 3.9%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4.5%, 2017년에는 6.2%로 상승하였다.

(서민경제고통지수 : 생활물가상승률 + 체감실업률(고용보조지표3)) 서민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추석 직전 11.0%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10.5%로 소폭 개선되었으나, 2017년에는 14.9%로 크게 상승하였다. 특히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4.4%p 올라서 상승폭이 컸는데, 이는 주로 높아진 생활물가상승률에 기인한다.

(청년경제고통지수 : 청년물가상승률 + 청년체감실업률(고용보조지표3)) 청년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추석 직전 22.5%를 기록하였고, 2016년에는 22.3%로 소폭 개선되었으나, 2017년에는 24.9%로 크게 상승하였다. 특히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2.6%p 올라서 상승폭이 컸는데, 이는 주로 높아진 청년실업률에 기인한다.

< 추석 직전 경제고통지수 비교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1) 2015, 2016년은 8, 9월 경제고통지수의 평균, 2017년은 8월 값 기준임.

주2) 각 지수 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함.

■ 시사점

최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고용창출력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고통지수는 물론이고, 서민 및 청년경제고통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**첫째**,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. **둘째**, 생활물가 안정 및 가계소득 확대를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을 확보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. **셋째**,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,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.

1. 개요

- 최근 국내 경기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실질임금 증가율이 감소하고 생활물가와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서민 생활 개선은 미흡
 - 2017년 들어 실질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실질임금 증가율은 감소
 - 국내총생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16년 3분기 2.6% 4분기 2.4%에서 2017년 1분기 2.9%, 2분기 2.7%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
 - 그러나 실질임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6년 3분기 2.8%, 4분기 1.9%에서 2017년 1분기 0.4%, 2분기 1.6%로 감소함
 - 또한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등 서민 생활 개선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
 - 2017년 2분기 청년실업률은 10.5%로 전년동기 실업률인 10.3%에 비해 악화되었고, 청년고용률도 동기간 59.0%에서 58.4%로 감소함
 - 또한 생활물가도 2016년 0%대 수준에서 2017년 2분기 2.4%로 상승하여 서민 생활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
 - 본 보고서에서는 서민과 청년에 대한 경제고통지수를 추정하여 과거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함

<참고> 경제고통지수(Misery Index) 정의

- 경제고통지수(Misery Index)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,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
 - 오쿤(Okun, 1975)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에 착안하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경제고통지수로 정의
 - 경제고통지수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삶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구성됨
 - **본 보고서에서는 서민과 청년의 경제고통지수를 새롭게 정의¹⁾**

1) 정의와 추정방법은 별첨 참조.

2. 경제고통지수 추정

1) 경제고통지수

○ 2015년 이후 국내 경제고통지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, 추석 직전 경제고통지수도 빠르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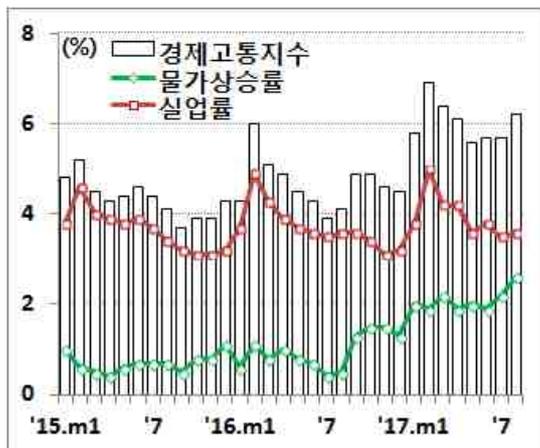
- (경제고통지수) 국내 경제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아지면서 2015년 이후 상승 추세 모습

- 2015년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 1% 하회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상승률은 2016년 하반기 이후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2017년 8월 2.6%를 기록함
- 또한 실업률은 2015년 8월 3.4%에서 2017년 8월 3.6%로 상승하였고, 1~8월 기준으로 2015년 3.9%에서 2017년 4.0%로 악화됨
- 이에 따라 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8월, 2016년 8월 4.1%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7년 8월 6.2%로 크게 상승함

- (추석직전비교) 추석 직전 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,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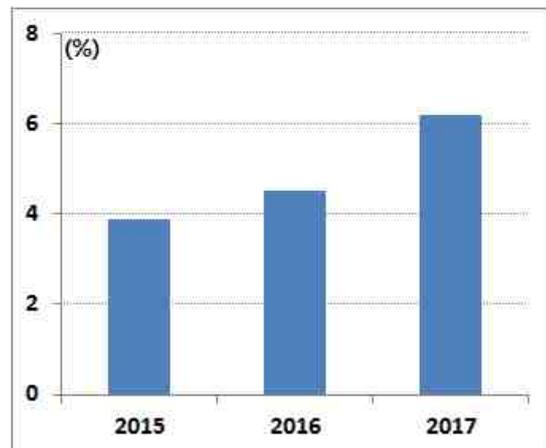
- 2015년 추석 직전 경제고통지수는 3.9%를 기록하였으나, 2016년에는 4.5%, 2017년에는 6.2%로 상승함
- 특히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1.7%p 올라서 상승폭이 컸는데, 이는 주로 높아진 물가상승률에 기인함

< 경제고통지수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추석 직전 경제고통지수 비교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 : 2015, 2016년은 8, 9월 경제고통지수의 평균, 2017년은 8월 값 기준임.

2) 서민경제고통지수

○ 생활물가상승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상승률과의 격차가 확대 되는 추세이며, 체감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

- (생활물가) 생활물가상승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10월 이후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상회하면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

-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생활물가상승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10월 이후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임
- 이에 따라 전체 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의 격차가 2015년 1월 -1.3%p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다 양수(+)로 전환된 후 2016년 11월 0.1%p에서 2017년 8월 1.1%p로 확대됨

- (체감실업률) 체감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소폭 축소되다 2016년 하반기부터 다시 확대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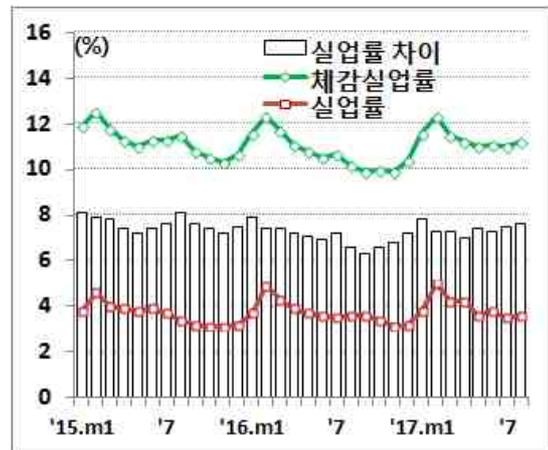
- 전체 실업률이 4% 전후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유지하는 반면, 체감실업률은 10%대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함
- 체감실업률이 2015년 8월 11.5%에서 2016년 8월 10.2%까지 하락하였으나, 이후 상승하여 2017년 8월 11.2%를 기록함
- 이에 따라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2016년 8월 6.6%p에서 2017년 8월 7.6%p로 확대됨

< 생활물가상승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체감실업률 추이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주 : 2015, 2016년은 8, 9월 경제고통지수의 평균, 2017년은 8월 값 기준임.

○ 2015년 이후 서민경제고통지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, 추석 직전 서민 경제고통지수도 증가

- (서민경제고통지수) 서민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이후 상승 추세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고통지수와의 격차가 확대

- 서민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8월 11.4%에서 2016년 8월 10.0%로 하락했으나, 이후 2017년 8월 14.9%까지 급등함
- 서민경제고통지수와 경제고통지수와의 차이는 2017년 1~8월 평균 8.0%p로 2015, 2016년 동기간 평균인 6.7, 6.8%p에 비해 격차가 확대됨
- 이는 2015년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낮았던 반면 2017년에는 생활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임

- (추석직전비교) 추석 직전 서민경제고통지수는 2016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, 2017년 크게 악화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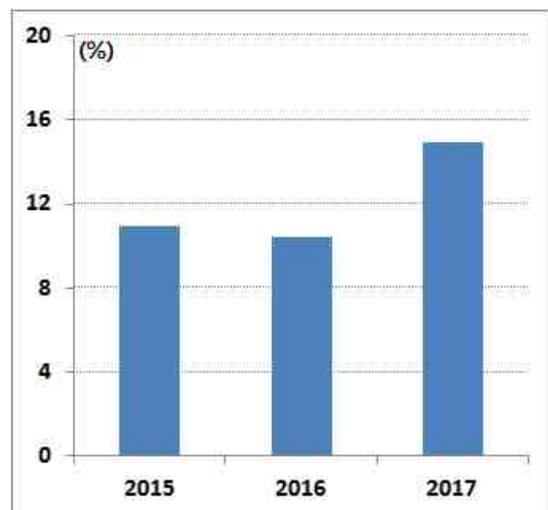
- 2015년 추석 직전 서민경제고통지수는 11.0%를 기록하였고, 2016년에는 10.5%로 소폭 개선되었으나, 2017년에는 14.9%로 크게 상승함
- 특히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4.4%p 올라서 상승폭이 컸는데, 이는 주로 높아진 생활물가상승률에 기인함

< 서민경제고통지수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추석 직전 서민경제고통지수 추이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 : 2015, 2016년은 8, 9월 경제고통지수의 평균, 2017년은 8월 값 기준임.

3) 청년경제고통지수

○ 청년물가상승률은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체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, 청년체감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는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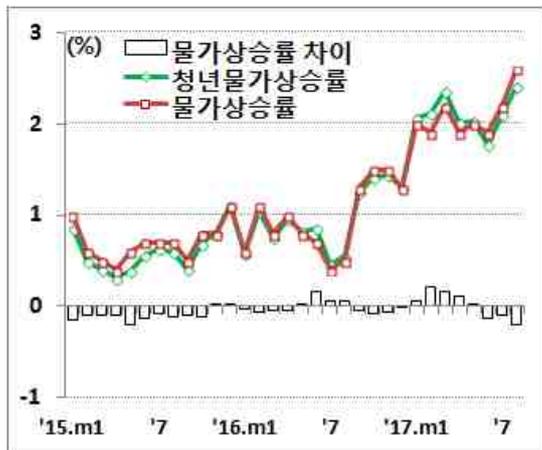
- (청년물가) 청년물가상승률은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체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움직임

- 청년물가상승률은 2016년 상반기까지 1%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전체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
- 이에 따라 전체 물가상승률과의 격차는 0%p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2017년 2월 0.2%p에서 격차가 감소하다 8월 -0.2%p로 확대됨

- (청년체감실업률) 청년체감실업률은 20%대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며,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최근 확대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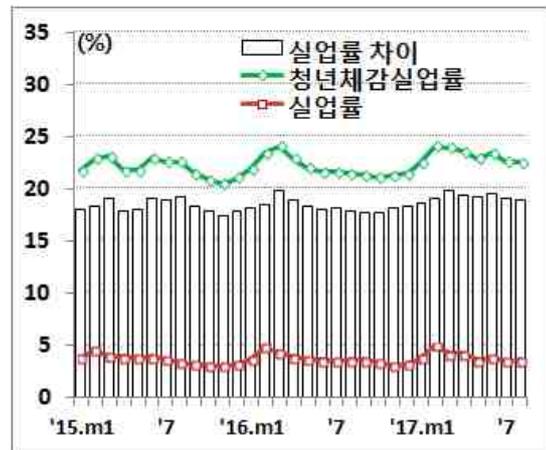
- 청년체감실업률은 20%대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, 2016년 8월 21.5%에서 2017년 8월 22.5%로 상승함
- 반면 전체 실업률은 4%대 전후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청년체감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 격차는 2016년 8월 17.9%p에서 2017년 8월 18.9%p로 확대됨

< 청년물가상승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청년체감실업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주 : 2015, 2016년은 8, 9월 경제고통지수의 평균, 2017년은 8월 값 기준임.

○ 2015년 이후 청년경제고통지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, 추석 직전 청년 경제고통지수도 최근 빠르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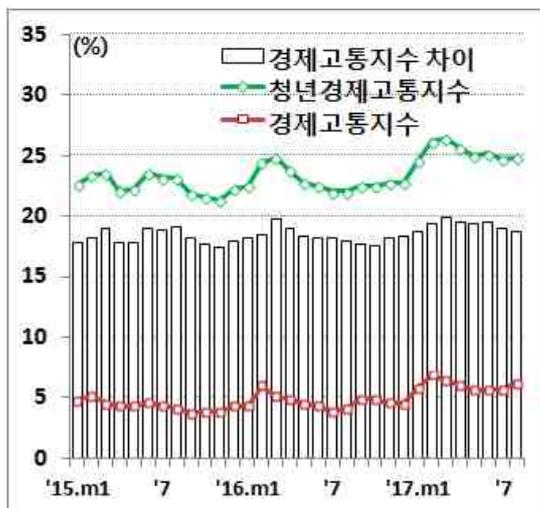
- (청년경제고통지수) 청년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이후 상승 추세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고통지수와의 격차가 확대

- 청년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8월 23.2%에서 2016년 8월 22.1%로 하락했으나, 이후 2017년 8월 24.9%까지 상승함
- 청년경제고통지수와 경제고통지수와의 차이는 2017년 1~8월 평균 19.3%p로 2015, 2016년 동기간 평균인 18.4, 18.5%p에 비해 격차가 크게 확대됨
- 이는 2015,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청년 체감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임

- (추석직전비교) 추석 직전 청년경제고통지수는 2016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다가, 2017년 크게 악화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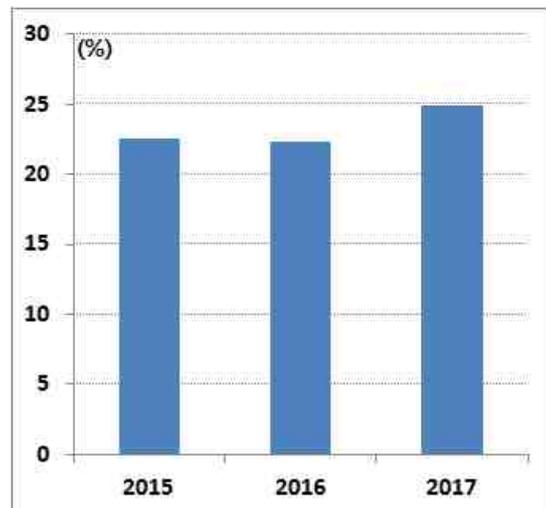
- 2015년 추석 직전 청년경제고통지수는 22.5%를 기록하였고, 2016년에는 22.3%로 소폭 개선되었으나, 2017년에는 24.9%로 크게 상승함
- 특히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2.6%p 올라서 상승폭이 컸는데, 이는 주로 높아진 청년실업률에 기인함

< 청년경제고통지수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추석 직전 청년경제고통지수 비교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 : 2015, 2016년은 8, 9월 경제고통지수의 평균, 2017년은 8월 값 기준임.

3. 시사점

첫째,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.

-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
 - 중장기적으로 내수 서비스업 등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함
 - 미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융합형·혁신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, 기술, 기업 간 융합 촉진 및 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해야 함
 -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사업화 등을 통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이 필요함
-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자본축적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노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
 -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에 직결되는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R&D, 무형자산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
 -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

둘째, 생활물가 안정 및 가계소득 확대를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을 확보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.

- 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, 공공요금 등의 안정을 도모하여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,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
 - 청년임대주택, 행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년층 및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함
 - 한편 공공요금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, 불가피하게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서민의 생활비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
-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급안정 및 유통시스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한 가격 안정이 필요
 -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경우 정부의 조기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생필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수급안정을 확보해야 함
 - 또한 장마, 폭염 등 기후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수처리 시스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
 - 원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, 담합이나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

셋째,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,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.

-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
 -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내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함
 -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력 강화가 필요함
 -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함
-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, 청년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및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확대
 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구직에 필요한 기술 교육 등의 기회 제공을 확대해야 함
 - 벤처 활성화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청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력 강화하고, 기업의 청년고용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의 청년층 고용 흡수를 높일 필요가 있음
 - 적어도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은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등의 확대가 필요함

- 경제 성장이 가구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로를 강화하고, 복지 지출의 양적·질적 확대를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
 - 일자리의 총량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, 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구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
 -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복지 지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
 - 부정수급 등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
 - 다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배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배가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함 **HRI**

오준범 선임 연구원 (2072-6247, jboh19@hri.co.kr)

신유란 연구원 (2072-6240, yooran0111@hri.co.kr)

【별 첨】 서민경제고통지수와 청년경제고통지수 정의

- (서민경제고통지수) 체감실업률과 생활물가상승률의 합을 서민경제고통지수로 정의
 - 공식 실업자 외에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와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(잠재경제활동인구)를 포함한 확장적 개념의 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2)을 서민의 체감실업률로 이용함
 - 서민의 체감물가로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, 많이 구입하는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물가지수인 생활물가를 이용하며, 이는 서민의 현실적인 삶과 직결되는 품목들로 구성되어 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물가 수준을 잘 나타냄

- (청년경제고통지수) 청년층 체감실업률과 청년층 물가상승률의 합을 청년경제고통지수로 정의
 - 청년층의 경우에도 공식 청년실업률 대신 청년층의 체감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적 개념의 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)을 이용함
 - 청년층 체감물가로는 청년층의 소비 비중을 반영하여 구성한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며, 청년층 소비 비중은 청년층 전체의 소비 패턴을 조사한 자료의 부재로 가계동향조사의 20대 이하 가구주의 품목별 소비 비중으로 구함

2) 고용보조지표3=(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+ 실업자+ 잠재경제활동인구)/확장경제활동인구*100.